

##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윤현경<sup>†</sup> · 최미숙 · 조우순  
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

### Effect of Self-Efficacy, Self-Elasticity, Major Satisfaction of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on Campus Life Adaptation

Hyun-Kyung Yun<sup>†</sup> · Mi-Sook Choi · Woo-Sun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that the self-efficacy, self-elasticity, and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would have on the adaptation to the campus life.

**Methods:** The total 396 students were surveyed who majored in dental hygiene in universities located at Gyeongbuk and Gyeongnam from October 15, 2013 to October 3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7.0 program, along with the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aptitude and interest' were found to be greatest factor among the motive for application among the factors of self-efficacy, self-elasticity, and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elf-elasticity had a correlation of 0.741 and the adaptation to the study had a correlation of 0.420 in the self-efficacy, while the individual emotional adaptation, adaptation to university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the study had a correlation as high as over 0.4 in the self-elasticity( $p < 0.05$ ).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daptation to the campus life increased proportionally to the self-elasticity and major satisfaction( $p < 0.05$ ).

**Conclusions:** To increase the campus life adapt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xplore the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self-elasticity and overall major satisfaction.

접수일 : 2015년 1월 5일, 수정일 : 2015년 3월 31일, 채택일 : 2015년 4월 14일

교신저자 : 윤현경(760-709,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번지)

Tel: 054-851-3663 FAX: 054-852-9907 E-mail: yhk8321@hanmail.net

**Key words:** Campus Lif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Self-elasticity

## I. 서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한 후 틀에 짜인 이전의 공교육과는 달리 본인이 선택한 학교와 학과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박현주와 장인순, 2010). 그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현재의 발달 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 활적응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90%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진, 2009). 이러한 적응과 관련하여 자아효능감은 학습자가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지각된 효능감, 효능기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즉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신민희, 2009),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Bandura, 1977). 그 외에도 자아효능감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회덕, 2007).

최근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뜻하는 개념인 자아탄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의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적 차원의 조절과 상황 및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Block와 Block, 1980). 따라서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긴장,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 진다(박현진, 1996).

학과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의 산물'로써,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면 학과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과만족이란 자신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과의 비교 등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기대와 진로나 직업준거 집단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계현과 하혜숙, 2000).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Baker와 Siryk, 1984). 개인이 설정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나 진로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교생활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진로를 제대로 결정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enny와 Rice, 1995). 또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성적하락, 학교로부터의 소외감, 학교 부적응,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장대운 등, 1986)

현재까지 국내에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과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학과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치위생과 학생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북·경남지역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중 편의표본 추출에 의해 선정된 45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54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396명이었다.

### 2. 연구도구의 구성

자아효능감 측정도구는 홍혜영(1995)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Klohn(1996)이 캘리포니아 인성검사(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CPI)와 캘리포니아 성인용 Q-Set(California Adult Q-set: CAQ)을 토대로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자아

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6)이 번역한 29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과만족도는 김계현과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고, 대학생활적응도는 이윤정(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진술 문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로 검정하였고, 유의한 변수에 대한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시행하였다.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고,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43.7%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63.9%,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40.7%, 학업성적은 '평점 3.0-3.9점'이 6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학년	1	142	35.9
	2	81	20.5
	3	173	43.6
종교	기독교	60	15.2
	천주교	19	4.8
	불교	64	16.1
	무교	253	63.9
지원동기	고교성적 고려	33	8.3
	부모님과 주위권유	82	20.7
	취업률	161	40.7
	적성과 흥미	30	7.6
	전문직	90	22.7
학업성적	평점3.0이하	77	19.4
	평점3.0-3.9	262	66.2
	평점4.0이상	57	14.4
합계		396	100.0

## 2. 신뢰도 검정

자아효능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860, 자아탄력성 0.901, 학과만족도는 교과만족 0.891, 인식만족 0.853, 관계만족 0.845로 3개

의 하위요인 모두 신뢰성 계수가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도는 개인정서적응 0.812, 대학환경적응 0.706, 학업적응 0.684, 사회적응 0.691로 4개의 하위요인 모두 항목 제거 후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의 신뢰도

요인	문항수	Cronbach $\alpha$	
자아효능감	23	0.860	
자아탄력성	29	0.901	
학과만족도	교과만족	6	0.891
	인식만족	6	0.853
	관계만족	6	0.845
	총합	18	0.906

	요인	문항수	Cronbach $\alpha$
대학생활적응도	개인정서적응	5	0.812
	대학환경적응	5	0.706
	학업적응	4	0.684
	사회적응	2	0.691
	총합	16	0.844

###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은 지원동기에서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을 한 학생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적성과 흥미' 군과 '고교성적 고려', '취업률', '전문직'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0.028$ ). 학업성적은 '평균 4.0이상'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평균 3.0이하', '평균 3.0-3.9', '평균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0.001$ ).

자아효능감은 '3학년'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3학년'과 '1학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40$ ).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 군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적성과 흥미' 군이 다른 모든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 학업성적은 '평균 4.0이상'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결과 '평균 3.0이하', '평균 3.0-3.9', '평균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0.001$ ) <표 3>.

<표 3>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비교

	구분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Means $\pm$ SD	Means $\pm$ SD
학년	1	3.13 $\pm$ 0.50	3.14 $\pm$ 0.44 <sup>a</sup>
	2	3.16 $\pm$ 0.45	3.19 $\pm$ 0.38 <sup>ab</sup>
	3	3.25 $\pm$ 0.49	3.26 $\pm$ 0.39 <sup>b</sup>
	F(p)	0.769(0.074)	2.697(0.040)*
	종교	기독교	3.11 $\pm$ 0.49
	천주교	3.36 $\pm$ 0.51	3.28 $\pm$ 0.43
	불교	3.15 $\pm$ 0.46	3.19 $\pm$ 0.37
	무교	3.20 $\pm$ 0.49	3.21 $\pm$ 0.40
	F(p)	1.446(0.212)	0.654(0.597)
지원동기	고교성적 고려	2.98 $\pm$ 0.50 <sup>a</sup>	3.05 $\pm$ 0.45 <sup>a</sup>
	부모님과 주위권유	3.22 $\pm$ 0.54 <sup>bc</sup>	3.20 $\pm$ 0.39 <sup>a</sup>
	취업률	3.18 $\pm$ 0.46 <sup>b</sup>	3.19 $\pm$ 0.42 <sup>a</sup>
	적성과 흥미	3.38 $\pm$ 0.46 <sup>c</sup>	3.42 $\pm$ 0.42 <sup>b</sup>
	전문직	3.18 $\pm$ 0.48 <sup>b</sup>	3.20 $\pm$ 0.36 <sup>a</sup>
	F(p)	1.583(0.028)*	2.722(0.012)*

구분		자아탄력성 Means±SD	자아효능감 Means±SD
학업성적	평균3.0이하	3.01±0.46 <sup>a</sup>	3.08±0.41 <sup>a</sup>
	평균3.0-3.9	3.20±0.48 <sup>b</sup>	3.20±0.37 <sup>b</sup>
	평균4.0이상	3.37±0.52 <sup>c</sup>	3.38±0.49 <sup>c</sup>
	F(p)	7.657(0.001) <sup>***</sup>	5.605(0.001) <sup>**</sup>

\* p<0.05, \*\* p<0.01, \*\*\* p<0.001 by one-way ANOVA

a,b,c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 4. 일반적인 특성과 학과만족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교과만족에서 학년은 '3학년'이 3.31로 가장 높았고, '1학년', '3학년' 군과 '2학년'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8).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을 한 학생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군과 '적성과 흥미'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6). 학업성적은 '평균 4.0이상'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3.0이하', '평균3.0-3.9', '평균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관계만족에서 학년은 '3학년'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 군과 '1학년', '2학년'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학업성적은 '평균 4.0이상'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4.0이상' 군과 '평균 3.0이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7)<표 4>.

<표 4> 일반적인 특성과 학과만족도의 비교

		교과만족 Means±SD	인식만족 Means±SD	관계만족 Means±SD
학년	1	3.24±0.67 <sup>b</sup>	3.81±0.54	3.14±0.66 <sup>a</sup>
	2	3.04±0.54 <sup>a</sup>	3.64±0.58	3.00±0.54 <sup>a</sup>
	3	3.31±0.68 <sup>b</sup>	3.77±0.62	3.47±0.62 <sup>b</sup>
	F(p)	12.491(0.008)	2.950(0.108)	19.757(0.001) <sup>*</sup>
종교	기독교	3.06±0.63	3.77±0.60	3.10±0.74
	천주교	3.29±0.69	3.84±0.74	3.32±0.61
	불교	3.16±.61	3.71±0.56	3.22±.63
	무교	3.28±.67	3.76±0.58	3.30±0.63
	F(p)	3.341(0.082)	0.235(0.597)	0.561(0.169)
지원동기	고교성적 고려	3.00±0.69 <sup>a</sup>	3.64±0.47	3.26±0.78
	부모님과 주위 권유	3.14±0.71 <sup>a</sup>	3.79±0.58	3.17±0.75
	취업률	3.24±0.60 <sup>a</sup>	3.76±0.61	3.24±0.60
	적성과 흥미	3.58±0.62 <sup>b</sup>	3.92±0.64	3.46±0.57
	전문직	3.27±0.66 <sup>a</sup>	3.71±0.58	3.30±0.62
	F(p)	1.153(0.006)	1.067(0.336)	0.964(0.341)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
		Means±SD	Means±SD	Means±SD
학업성적	평점 3.0이하	2.94±0.66 <sup>a</sup>	3.71±0.50	3.09±0.67 <sup>a</sup>
	평점 3.0-3.9	3.25±0.62 <sup>b</sup>	3.74±0.61	3.27±0.64 <sup>ab</sup>
	평점 4.0이상	3.55±0.63 <sup>c</sup>	3.90±0.58	3.44±0.62 <sup>b</sup>
	F(p)	3.430(0.001)*	2.453(0.129)	5.060(0.007)

\* p<0.05, \*\* p<0.01, \*\*\* p<0.001, by one-way ANOVA  
a,b,c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 5. 일반적인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도는 개인정서적응에서 학업성적 ‘평점 4.0이상’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평점 3.0이하’ 군과 ‘평점 4.0이상’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5). 대학환경적응은 학년별로는 ‘3학년’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 ‘3학년’ 군과 ‘2학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p<0.05), 학업성적은 ‘평점 4.0이상’이 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점 3.0이하’, ‘평점 3.0-3.9’, ‘평점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학업적응은 학년에서 ‘3학년’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 군과 ‘2학년’, ‘3학년’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군과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취업률이 높고 해외진출’ 군, ‘적성과 흥미’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학업성적은 ‘평점 4.0이상’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평점 3.0이하’, ‘평점 3.0-3.9’, ‘평점 4.0이상’ 각각의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01)<표 5>.

<표 5> 일반적인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비교

구분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
		Means±SD	Means±SD	Means±SD	Means±SD
학년	1	2.67±0.76	3.04±0.67 <sup>b</sup>	2.61±0.67 <sup>a</sup>	3.32±0.72
	2	2.67±0.77	2.81±0.60 <sup>a</sup>	2.88±0.68 <sup>b</sup>	3.33±0.61
	3	2.79±0.77	3.03±0.65 <sup>b</sup>	3.02±0.71 <sup>b</sup>	3.46±0.62
	F(p)	0.895(0.319)	0.818(0.017)*	3.510(0.001)***	11.411(0.129)
종교	기독교	2.50±0.71	2.83±0.69	2.62±0.79	3.34±0.77
	천주교	2.85±0.68	2.98±0.76	3.00±0.93	3.57±0.71
	불교	2.70±0.73	2.93±0.60	2.86±0.69	3.43±0.61
	무교	2.78±0.79	3.04±0.64	2.88±0.67	3.37±0.64
	F(p)	1.525(0.070)	2.101(0.125)	0.225(0.055)	3.632(0.530)
지원동기	고교성적 고려	2.60±0.71	2.79±0.54	2.51±0.69 <sup>a</sup>	3.54±0.68
	부모님과 주위권유	2.69±0.72	2.96±0.74	2.79±0.73 <sup>b</sup>	3.40±0.61
	취업률	2.77±0.78	2.99±0.64	2.82±0.63 <sup>b</sup>	3.31±0.68
	적성과 흥미	2.70±0.86	3.20±0.73	3.15±0.81 <sup>c</sup>	3.50±0.64
	전문직	2.73±0.79	3.01±0.56	2.96±0.75 <sup>bc</sup>	3.42±0.66
	F(p)	1.969(0.793)	1.271(0.164)	1.230(0.003)**	4.561(0.267)

구분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
	Means±SD	Means±SD	Means±SD	Means±SD
학업성적				
평균3.0이하	2.55±0.77 <sup>a</sup>	2.76±0.65 <sup>a</sup>	2.31±0.55 <sup>a</sup>	3.44±0.51
평균3.0-3.9	2.75±0.74 <sup>ab</sup>	2.98±0.63 <sup>b</sup>	2.89±0.65 <sup>b</sup>	3.34±0.67
평균4.0이상	2.87±0.86 <sup>b</sup>	3.33±0.60 <sup>c</sup>	3.35±0.73 <sup>c</sup>	3.51±0.76
F(p)	5.894(0.048)*	1.390(0.001)***	2.645(0.001)***	0.894(0.135)

\* p<0.05, \*\* p<0.01, \*\*\* p<0.001 by one-way ANOVA  
a,b,c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 6.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의 상관분석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효능감에서 자아탄력성 0.741, 학업적응은 0.420로 나타났다고,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자아탄력성은 개인정서적응 0.532, 대학환경적응 0.511, 학업적응 0.486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p=0.01). 교과만족은 인식만족 0.440, 관계만족 0.546, 대학환경적응 0.610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관계만족은 대학환경적응만 0.414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 0.460, 학업적응 0.441, 대학환경적응은 학업적응 0.482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표 6>.

<표 6>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의 상관분석

	자아 효능감	자아 탄력성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	개인정서 적응	대학환경 적응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자아효능감	1								
자아탄력성	0.741**	1							
교과만족	0.351**	0.370**	1						
인식만족	0.229**	0.214**	0.440**	1					
관계만족	0.237**	0.307**	0.546**	0.383**	1				
개인정서적응	0.275**	0.532**	0.148**	0.056	0.213**	1			
대학환경적응	0.375**	0.511**	0.610**	0.267**	0.414**	0.460**	1		
학업적응	0.420**	0.486**	0.362**	0.095	0.293**	0.441**	0.482**	1	
사회적응	0.305**	0.355**	0.186**	0.241**	0.232**	0.235**	0.308**	0.216**	1

\* p<0.05, \*\* p<0.01



**7. 대학생활 적응도가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정서 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효능감 t값 -3.916(p=0.000)로 부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 t값 11.271(p=0.000), 관계만족 t값 2.093(p=0.05)로 정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전체 적합성 F=37.265, 유의확률 0.000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고, 설명력은 약 32.3%였다<표 7>.

<표 7> 개인정서 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베타		
개 인 정 서 적 응	상수	0.726	0.300		2.419	0.016
	자아효능감	-0.462	0.118	-0.246	-3.916	0.000***
	자아탄력성	1.123	0.100	0.716	11.271	0.000***
	교과만족	-0.077	0.063	-0.066	-1.223	0.222
	인식만족	-0.069	0.062	-0.053	-1.125	0.261
	관계만족	0.127	0.061	0.107	2.093	0.037**
F=37.265 p=0.000 R <sup>2</sup> =0.323						

\*\* p<0.01, \*\*\* p<0.001

**2) 대학환경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t값 6.830(p=0.000), 교과만족 t값 9.953(p=0.000)로 정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70.102, 유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7.3%였다<표 8>.

<표 8> 대학환경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베타		
대 학 적 응	상수	0.184	0.224		0.823	0.411
	자아효능감	-0.134	0.088	-0.084	-1.526	0.128
	자아탄력성	0.508	0.074	0.383	6.830	0.000***
	교과만족	0.469	0.047	0.473	9.953	0.000***
	인식만족	-0.034	0.046	-0.031	-0.738	0.461
	관계만족	0.070	0.045	0.070	1.556	0.121
F=70.102 p=0.000 R <sup>2</sup> =0.473						

\*\* p<0.01, \*\*\* p<0.001

**3) 학업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t값 4.927(p=0.000), 교과만족 t값 3.655 (p=0.000)로 정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만족 t값 -2.684(p=0.008)로 부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만족 t값 2.046(p=0.041)로 정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32.821, 유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9.6%였다<표 9>.

<표 9> 학업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베타		
	상수	0.223	0.283		0.789	0.430
학	자아효능감	0.204	0.111	0.118	1.839	0.067
업	자아탄력성	0.462	0.094	0.319	4.927	0.000***
적	교과만족	0.218	0.060	0.201	3.655	0.000***
응	인식만족	-0.156	0.058	-0.130	-2.684	0.008**
	관계만족	0.117	0.057	0.107	2.046	0.041**

F=32.821 p=0.000 R<sup>2</sup>=0.296

\*\* p<0.01, \*\*\* p<0.001

**4) 사회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t값 3.589(p=0.000), 인식만족 t값 2.935 (p=0.004), 관계만족 t값 1.965(p=0.050)로 정적인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15.421, 유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5%였다<표 10>.

<표 10> 사회적응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베타		
	상수	1.092	0.285		3.828	0.000
사	자아효능감	0.126	0.112	0.078	1.120	0.263
회	자아탄력성	0.340	0.095	0.253	3.589	0.000***
적	교과만족	-0.064	0.060	-0.064	-1.072	0.284
응	인식만족	0.172	0.059	0.155	2.935	0.004**
	관계만족	0.113	0.058	0.112	1.965	0.050

F=15.421 p=0.000 R<sup>2</sup>=0.165

\*\* p<0.01, \*\*\* p<0.001

#### IV. 논의

본 연구는 치과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과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에서 지원동기 중 '적성과 흥미'가 모두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공을 고교성적이나 부모 권유에 의해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으며(임은미 등, 2009),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고, 호기심과 흥미, 적성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그룹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는 박미정 등(2012)의 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 직업에 대해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arron 등, 2007),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준중감이 높고 자신의 직업이 부정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한다(이민순, 2009). 따라서 직업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과만족도 중 학업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존감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신은주, 2008), 높은 학교 생활 적응력을 보인다(강혜원, 1998; 김용래와 유효현 2012). 자아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으며 힘들고 변화된 환경에서도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자아효능감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학업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박진아와 이은경(2011)과 최혜정과 이명선(2013)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힘들고 변화된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문제에 대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전단계로서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들은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성순옥 등, 2013)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과만족도 중 교과만족과 관계만족은 대학생활 적응도의 하위항목 중 대학환경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2014)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로 대학생활 적응에는 물리적 서비스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보다 교육서비스, 즉 학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인정서적응에는 자아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며, 대학환경적응에는 자아탄력성과 교과만족도가 학업적응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과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이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응에는 자아탄력성, 인식만족, 관계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도의 하위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숙정(2011)은 자아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적응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장경문(2005)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서 학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정서, 환경적응 등 모든 측면에서 적응력이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성공적인 학업수행과 성공감에 의한 자신감 등은 학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대학생이 학업 외 다른 측면의 대학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서(김애숙 201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생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며,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적대감, 불안증 의 정신건강과 높은 부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을 보고하였다(정은옥, 2006; 신현균과 장재윤, 2003).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경북·경남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북·경남지역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에서 지원동기

중 '적성과 흥미' 군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력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과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정서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교과만족이 높을수록 대학환경적응과 학업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인식만족,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은 자아탄력성과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아지는 것을 나타냈으며, 인식만족은 낮을수록 학업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전반적인 학과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강혜원.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 자기효능 및 내적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98;12(2):85-107.
2.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2000;1(1):7-20.
3. 김애숙. 병원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및 자아 탄력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수원: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4. 김용래, 유효현. 자기효능감과 수업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탐색. 인문과학 2012 ;10:93-115.
5. 김정. 관광관련학과 교육서비스품질이 경제적 가치,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6. 박미정, 함영립,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 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12(4): 327-337.
7.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11;17(3):267-276.
8.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0;16(1):14-23.
9.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10.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3;20(8):49-70.
11. 신민희. PBL 수업에서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 한국공학교육학회 2009;12(4):30-37.
12. 신은주.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 및 기본간호수술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2008;15(3):380-386.
13. 신현균, 장재윤.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2003;22(4):815-827.
14. 신희덕.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07.
15. 이민순. 항공운항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직업준중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9(6):370-378.
16. 이수진.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2009;6(2):229-248.
17. 이숙정.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학회지, 2011;25(2):235-253.
18. 이운정.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계획[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19. 임은미, 박승민, 임영숙.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09;16(10):33-50.
20. 장경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05;6(1):185-196.
21. 장대운, 박진현, 나동진, 이영식.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논문집 1986;14: 1109-1154.
22. 정은옥. 심리적 탄력척도의 타당화[석사학위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6.
23. 최혜정, 이명선. 일부 치위생과 신입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연관성.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13;39(2):129-138.
24. 홍혜영.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25.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1977.
26.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984;31(2):179-189.
27. Barron D, West E, Reeves R.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2007;12(1):46-51.
28. Block J, Block J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980;13:39-101.
29. Kenny ME, Rice KG.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1995;23(3):433-456.

30. Klohnen E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5): 1067-1079.